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소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주일 예배 봉사위원

	11. 27	12. 04	12. 11
대 표 기 도	황희순 집사	정용현 집사	노지민 성도
성 경 봉 독	황희순 집사	정용현 집사	노지민 성도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1월 축복인사 - 성도님, 힘내세요(성도 간에)
아하자(자신에게)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감사 - 말씀을 전해주시는 맹기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3. 귀국 - 김효중 집사(27일 오전 10시, 브레멘 공항)
4. 담임목사 동정 - 24일(목) 브레멘에 도착 예정입니다.
5.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천교실에서 식사교제가 있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심 일 조	
선교헌금	
합계(Euro)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정용현 안수집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95장	다같이
기 도 Gebet	-----	김효종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눅 4 : 38 - 44(신p95) (2.Chronik 29:29-33)	김효종 집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정용현 안수집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맹기현 목사
설 교 Predigt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감사	맹기현 목사
특별찬송 Sonderlieder		김효종 집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	맹기현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황희순 집사

†기도제목

1. 지금 당장 내게도 기적을 베풀어주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전도, 구제, 봉사, 영성훈련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되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온 세상을 위해 쓰임 받는 가정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포기할 수 없는 평생의 숙제입니다. 가족끼리 성격이 안 맞아도, 말이 안 통해도, 서로가 가르치려고 덤벼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말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서로 기도하며 사랑하십시오.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감정 소모가 가장 심한 곳이 가정이고 또 가정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격의 하한선을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한 인간인가를 여지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딪침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에 대해 절망하면서 또 가족을 보고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식을 위해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가정을 통해서 연단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기에 우리는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 안에 말씀이 선포될 때 건강한 가정, 예배하는 가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살리는 목회, 살아나는 교회 / 김문훈 목사
(부산 포도원교회 담임)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는?
2. 현재 나의 기도제목은?